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첫 번째 참가자의 답안]

제시문 (가),(나),(다)는 ‘미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글을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가)에서 문인화가들은 휘어지고 병든 매화를 좋아하는 괴박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문인화가들의 ‘미의 기준’이 매화 판매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인근 매화가 병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 에서는 의상대사가 만든 무량수전의 계획된 조화로움과 절제된 구성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 에서는 르네상스시대에 궁정의 여성이 요구받는 우아함이 여성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시문 (가)와 (나)는 제 3자가 객체에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감상자는 미의 기준을 바탕으로 감상하는데 반해 제시문(다)는 아름다움이 객체가 나타내는 의도에서 드러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제시문 (가)에서 문인화가와 ‘나’는 매화상인이 만든 매화의 외형적인 모양, 상태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제시문(나)또한 의상대사라는 인물을 통해 만들어진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감상자는 의도가 담겨진 객체에서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 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요구받는 여성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는 감상자의 미적 기준에 따른 감상이라기 보다는 객체의 의도를 통해서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감상자의 미의 기준은 객체의 태도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도 감상자의 태도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제시문(가)에서 문인화가들은 자신들의 미의 추구를 위해 제 3자의 의도에 영향을미치고 주변에 폐해를 끼쳤는데 비해 제시문 (나)의 감상자는 제 3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감상했다는 점에서 태도가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문제 1> :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첫 번째 참가자의 답안 침삭]

제시문 (가),(나),(다)는 ‘미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글을 서술하고 있다.

->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문에서 공통된 주제어를 찾으라는 요구가 있었 습니다. 이 학생은 ‘미의 근원’을 그 주제어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어를 설정하는 데 반해서 ‘아름다움의 근원’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주제어를 잡은 것은 각 제시문의 논리와 맞아 떨어진다면 주효합니다.

-> 일단 이 ‘미의 근원’이라는 주제어 설정 자체의 정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발문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지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네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문항에 대해서 ‘공 통의 주제어’를 찾으면서 반드시 그 근거를 들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발문에 그런 말은 없었지 않느냐고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모든 ‘주장’에는 ‘근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대지 않은 주장은 생떼죠. ‘미의 근원’이라는 공통의 주제어를 가진 다는 ‘주장’을 폈다면 반드시 그 근거를 서술해주어야 합니다.

P : 근거	->	Q : 공통의 주제어 (주장)
?	->	미의 근원

-> 학생의 답안은 이런 논리 구조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제시문(가)에서 문인화가들은 휘어지고 병든 매화를 좋아하는 괴박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문인화가들의 ‘미의 기준’이 매화 판매자에게 전달됨에 따라 인근 매화가 병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나) 에서는 의상대사가 만든 무량수전의 계획된 조화로움과 절제된 구성에서 느껴 지는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다) 에서는 르네상스시대에 궁정의 여성이 요구받는 우아함이 여성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시문 (가), (나), (다)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아마도 이 세 제시문의 요약을 통해서 앞서 말한 ‘미의 근원’이라는 주제어를 왜 설정했는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미 의 근원’을 공통의 주제어로 삼은 이상 근거로 제시된 이 부분에서는 ‘미의 근원’이 어디에 있 는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 까지는 서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제시문 (가)에 대한 서술입니다.**

-> (나), (다)에 비해 (가)는 각 제시문의 ‘미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이 드

러나지 못합니다. 단지 (가)에서는 문인화가들이 괴벽한 미의 기준으로 상인들로 하여금 매화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례가 제시된다는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제시문들에 대한 서술과 비교해보죠.

참가자가 든 근거	>	공통된 주제어 ; 미의 근원
???????????????	>	매화의 아름다움의 근원
계획된 조화로움, 절제	>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의 근원
여성의 태도	>	궁정 여성의 아름다움의 근원

-> (가)가 이렇게 지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결국 (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의 필자가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가)의 필자는 분명히 문인화와 상인과 대립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인과 문인화가는 (가)를 쓴 필자의 입장에서 ‘비판받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먹는 입장’입니다. **학생이 쓴 답안은 (가)의 입장이 될 수 없는 측의 입장을 (가)의 논지로 착각한 경우, 혹은 갈팡질팡 하다가 제대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 (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SVO표를 활용해보죠.

S	V	O
필자 : (가)의 입장	비판, 욕	매화를 성기게 하는 문인화와 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연 그대로의 매화 (인위성이 배제된 매화)
문인화가 : (가)의 비판받는 입장	아름다움을 느낀다.	성기게 된 매화 (인위성을 가진 매화)
상인 : (가)의 비판받는 입장	성기게 한다. (인위성을 가미한다)	매화

-> 이 참가자에게 팁을 주자면 이렇습니다. 2011학년도 연세대학교 사회 문항인 ‘과학적 인과론’ 문항의 (가) 제시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지금 풀었던 ‘아름다움’문항과 마찬가지로이지만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깊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시문 (가)와 (나)는 제 3자가 객체에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감상자는 미의 기준을 바탕으로 감상하는데 반해 제시문(다)는 아름다움이 객체가 나타내는 의도에서 드러난다는 데 차이가 있다.

-> 첫 번째 비교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 3자’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가라는 기준입니다.

-> 아쉽지만 이러한 기준 설정은 연세대학교 기출 문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기준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로지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제시문의 중심은 지에서 얻어지는 기준이 아닌 ‘자의적’인 기준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해서 각 제시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작은 내용을 역지로 끌어다가 답안을 구성한 것입니다.

-> 여기서는 바로 비교기준의 답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찾아가는 사고과정을 한번 쪽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대체 어찌라는 것이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보죠. 발문에서는 ‘공통된 주제어’가 무엇인가? 에 대한 요구사항이 등장했는데요. 각 제시문의 논의를 보면 일단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각각의 논지를 정리해보죠.

-> (가)는 아름다움에 인위성을 가미한 입장을 비판하며, 자연 그대로의 대상이 감상자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나)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예를 들어 인간의 계산과 자연환경이 조화되어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다)는 인위적 계획과 계산으로 얻어지는 여성의 태도(스프레짜투라)가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껴게 해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넓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공통된 주제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다릅니다. (가)는 아름다움을 인위적 계산, 개입이 배제된 것으로 보지만 (나), (다)는 미적 인식의 대상물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 계산,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첫 번째 비교기준은 당연히 ‘미적 인식 대상물에 대한 인위적 계산, 개입 여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제시문들은 분명히 이 지점을 쟁점으로 삼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답인겁니다.

인위적 계산 / 개입의 구체적 형태	>	아름다움의 근원	>	아름다움
X	>	자연	>	매화
자연과의 조화	>	자연 +인위적 계산 / 개입	>	무량수전
인위성이 자연미를 만드는 역설적 합일	>	자연 +인위적 계산 / 개입	>	여성의 우아함

-> 정리하자면 비교기준은 절대 어떤 ‘인위적인 제시문 뜯어보기’라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기준은 반드시 제시문 ‘내’의 읽기와 제시문 ‘간’ 읽기를 통한 공통된 논리의 흐름 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어를 두고 이 주제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제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각 제시문의 공통적인 답변과 차이가 나타나는 답변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보시고 기출 문제를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가)에서 문인화가와 ‘나’는 매화상인이 만든 매화의 외형적인 모양, 상태에 따라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제시문(나)또한 의상대사라는 인물을 통해 만들어진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감상자는 의도가 담겨진 객체에서 자신의 기준에 비

추어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 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요구받는 여성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는 감상자의 미적 기준에 따른 감상이라기 보다는 객체의 의도를 통해서 감상자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감상자의 미의 기준은 객체의 태도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 특별히 첨삭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비교기준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첨삭할 부분이 없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도 감상자의 태도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 두 번째 비교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엇나갔으니 두 번째 기준은 당연히 엇나갔겠죠.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학생의 답안을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1 비교기준'에서 한 쪽 편으로 나뉜 '패거리 제시문'의 공통점은 '제 2 비교기준'에서 '차이점'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 (나)와 (다)는 모두 아름다운 대상에 '자연'의 모습과 '인위적 계산,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둘은 여기서 다릅니다. 자연의 모습과 인위적 계산, 개입의 양자가 서로 '조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양자가 완전히 인위성 안에서 '역설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나)는 자연과 인위성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이 얻어진다고 하지만 (다)는 철저한 인위성의 개입으로 얻어진 '자연스러운 모습'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아름다움이 '자연+인위'라는 점은 같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인가 여부'에서는 다시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시문(가)에서 문인화가들은 자신들의 미의 추구를 위해 제 3자의 의도에 영향을미치고 주변에 폐해를 끼쳤는데 비해 제시문 (나)의 감상자는 제 3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감상했다는 점에서 태도가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 역시 아쉽지만 특별히 첨삭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를 평가하시오.

[첫 번째 참가자의 답안]

2.

제시문(라)에는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원석과 가공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에 모든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자연 상태인 사물을 인위적인 힘을 가해 조작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사물은 인간이 원하는 데로 변형하고 다룸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기보단 원래 그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물방울 다이아라도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사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입장에서 제시문(가)를 보자. 제시문 (가)에서 원석에 해당하는 것은 매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문(라)와 다른점은 일반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원석은 가공전보다 가공후가 가치있게 보이고, (가)는 매화의 가공전이 가공후보다 가치있게 보인다는 것이다.

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공전의 매화는 더 가치있는 재화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가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치의 높고 낮음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미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고해서 보편적으로 가치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공전의 매화는 보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이다. 전체 매화가 병든 매화로 조작되었을 때 ‘나’의 입장에서 매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문인화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를 평가하시오.

[첫 번째 참가자의 답안 침삭]

제시문(라)에는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원석과 가공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이다. 그렇기에 모든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자연 상태인 사물을 인위적인 힘을 가해 조작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사물은 인간이 원하는 데로 변형하고 다룸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기보단 원래 그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물방울 다이아라도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사물이 되는 것이다.

-> (라)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들여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다양한 관점'을 들여왔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들여와서 해석해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즉 참가자가 작성한 '가능성'과 '보존'의 측면을 통한 답안의 작성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하지만 여기서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난 뒤에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도식 화해보자면 이런 구조입니다.

다양한 관점	(분석) ->	(라)	(평가) ->	(가)
--------	------------	-----	------------	-----

->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라)는 어떤 관점으로 분석해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즉 (라)는 그 자체로는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는 어떤가요?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를 평가하라는 말은 다양한 관점에서 (가)를 평가하라는 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는 그 자체로 어떤 관점으로든 분석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니까요.

-> 즉,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를 권합니다. **앞선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떨어뜨려서 생각하고 풀려고 하면 문제를 2번 푸는 꼴이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모든 관점을 앞선 제시문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관점은 말 그대로 다양한 관점이기에 앞

선 1번 문항에서 부딪혔던 (나), (다)의 입장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실제 다른 연세대학교 기출문항들은 아예 '다양한 관점'을 전제하지 않고 '앞선 제시문'을 논의에 가져올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시문들 간의 입장이 부딪히는 지점,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도 유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학생은 앞선 1번 문항에서 (가)의 주장을 하나로 정하지 못했지만 사실 (가)의 주장은 하나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비판 받는 입장'을 주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분명히 (가)의 주장과 (가)에 등장하는 문인화가와 상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상인과 문인화가의 입장 역시도 '다양한 관점'에 포함되어 (라)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를 평가할 때에도 분명히 비판적인 논지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의 문인화와 상인의 입장, (나) (다)를 이용해 (라)를 해석한 경우 (가)를 평가할 때 크게 보아서 '아름다움에 인위성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의 문인화와 상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을 (나)의 입장에서는 '조화'를, (다)의 입장에서는 '역설적 합일'을 각각 주장하면서 비판을 펼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러한 두가지 입장에서 제시문(가)를 보자. 제시문 (가)에서 원석에 해당하는 것은 매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문(라)와 다른점은 일반 사람에게 다이아몬드원석은 가공전보다 가공후가 가치있게 보이고, (가)는 매화의 가공전이 가공후보다 가치있게 보인다는 것이다.

-> 제시문 (라)는 그 자체로 어떤 입장/주장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라)와 다른 점이라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 본' (라)라는 점이 표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 가공 전보다 가공 후가 더 가치있게 보이려면 (라)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무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 그 자체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물방울 다이아몬드 중 어느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있게 보이는 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공전의 매화는 더 가치있는 재화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가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가치의 높고 낮음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미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고해서 보편적으로 가치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공전의 매화는 보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가 추구하는 대상이다.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이다. 전체 매화가 병든 매화로 조작되었을 때 '나'의

입장에서는 매화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문인화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 우선 (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가능성’과 ‘보존’이라는 다양한 관점으로 (라)를 바라봤으면 이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과 논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내려져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가능성과 보존의 측면에서 분석한 (라)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입장은 타당/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서술이 있고 이에 대한 근거와 반론 가능성 점검과 같은 논증 구조가 형성되어합니다. 학생의 답안은 어떤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며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대응을 나열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논리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는 답안은 결코 좋은 답안이 될 수 없답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주장/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전제/가정/요건을 서술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